

##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문 지식 연구에 관한 小考 — 修信使 자료 DB 편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류인태

**To cite this article** : 류인태 (2016)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문 지식 연구에 관한 小考 — 修信使 자료 DB 편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50, 101-139

① earticl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학술교육원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earticl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www.earticle.net](http://www.earticle.net)

#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문 지식 연구에 관한 小考\*

— 修信使 자료 DB 편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류인태\*\*

## 【국문초록】

‘修信使 자료 DB 편찬 프로젝트’는 수신사와 관련된 여러 유형의 자료를 수집하고, 각 자료가 지닌 내용을 번역·해석한 뒤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DB를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본 프로젝트는, 자료를 수집·번역·연구하고 동시에 그로부터 생겨나는 여러 정보와 지식을 디지털 환경에서 효과적인 DB로 구축해야 하는 작업이기에, 디지털 인문학 연구의 일환으로 이해할 여지가 크다.

디지털 인문학 연구로서 본 프로젝트를 수용할 경우 2가지 차원에서 그 시사점을 짚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존 인문학 연구수행 방식과는 다른 디지털 인문학 연구수행 방식의 특징이 본 프로젝트에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본 프로젝트의 경우 기존 인문학 연구에서 통용되던 개인 중심의 단독적 연구를 벗어나 연구 집단 내에서의 적극적인 협업 체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연구결과물과 별개로 연구 수행 가운데 이루어지는 연구절차 또한 중요한 연구 요소로서 수용되고 있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고, 개인보다는 집단 연구를 지향하는 디지털 인문학 연구의 기본 방향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디지털 인문학의 영역에서 DB 구축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시각화 콘텐츠 구현과 DB 구축이 어떠한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본 프로젝트에서 능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디지털 인문학 관련 사업의 경우 ‘시각화, 디지털 콘텐츠 구현’ 요소에 치

---

\* 이 논문은 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4A01036400)

\*\* 한국학중앙연구원

중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각화 결과물을 구현하는 것만이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오해할 여지가 크다. 그러나 의미 있는 시각화 결과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결과물이 가능할 수 있게끔 치밀하게 설계된 DB가 전제되어야 하며, 본 프로젝트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 DB 설계 및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은 연구 수행 방향과 DB편찬 방향은 기존 인문학의 연구방법론에 근거하여 이해할 여지가 있다. 이는 곧 디지털 인문학 연구가 기존 인문학 연구와 그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 인문학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수용·이해되어야 할 연구 영역임을 의미한다.

핵심어 : 수신사, 修信使, DB 편찬, 토대연구, 디지털 인문학

차례

---

1. 머리말
  2. 修信使 자료 연구수행 방향
  3. 修信使 자료 DB 편찬 방향
  4. 맺음말
- 

## 1. 머리말

수신사(修信使)는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부터 1884년 갑신정변 사후 처리 시기까지 총 5회에 걸쳐 메이지 일본에 파견되었던 조선의 사절단을 가리킨다. 이는 수신사에 대한 협의(狹義)의 정의라 할 수 있다. 보다 넓은 외연으로 수신사를 바라볼 경우 사절단의 명칭인 ‘수신(修信)’의 함의에서도 드러나듯이 다섯 차례 일본에 파견된 공식적 사절단만을 한정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대교린(事大交隣)’의 전통적 외교 이데올로기로부터 탈피하여 일본과의 새로운 외교 체계를 고민하고 시도하였던 근대기 조선 사절단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여지 또한 있다.<sup>1)</sup> 이렇게 보았을 때 ‘수신사’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 따라 수신사와 관련된 자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경계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수신사 자료 DB 편찬 프로젝트’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수신사 자료를 ‘근대 전환기 신문물 수용을 위해 일본에 다녀왔던 조선 지식인들과 관련된 자료’로 정의함으로써, 보다 넓은 시각으로 ‘수신사’ 개념을 바라보고자 하였다. 19세기 말에 이루어진 공식적 사절단의 여정에 한정하여 자료를 수

---

1) 이효정, 『수신사 및 조사사절단 기록의 범주와 유형』, 『동북아문화연구』제45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5. 113면

집할 것이 아니라, 유학생과 비공식 수행원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근대기 일본으로 건너가 신문물을 접하였던 조선 지식인들의 다양한 활동을 종합하는 것이야말로 ‘수신사’가 품고 있는 근본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지름길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수신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구체적 연구대상으로 삼아 수집하고 번역하며 동시에 그러한 자료들로부터 추출한 유의미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DB를 고민하고 실제 그것을 구현해 내고자 하는 연구가 곧, ‘수신사 자료 DB 편찬 프로젝트’이다.

수신사 관련 자료를 수집·번역·연구하고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디지털 환경에서 효과적인 DB로 구축해야하는 작업이기에, ‘수신사 자료 DB 편찬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인문학의 영역에서 이해해야 할 요소가 많다. 특히 DB로 구축해야 할 자료들의 성격이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은, 그러한 이질적인 정보들을 복합적이고도 유기적인 DB 체재 내에서 매끄럽게 정리해내야 한다는 측면에서 디지털 미디어 또는 디지털 환경이 제공하는 여러 방법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함을 의미한다.

디지털 인문학의 시각에서 ‘수신사 자료 DB 편찬 프로젝트’를 조망할 경우 크게 2가지 차원에서 그 시사점을 짚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존 인문학 연구수행 방식과는 다른 디지털 인문학 연구수행 방식의 특징이 해당 프로젝트에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기존 인문학의 경우 전통적 인문학 연구방법론을 토대로 연구자 개인의 시각에 무게중심을 둔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개인 연구자가 연구실에 홀로 앉아 수집해둔 수많은 텍스트와 씨름을 하고, 그로부터 얻어낸 유의미한 지식을 글로 작성하여 논문이나 단행본 형식으로 출간하는 것이 기존 인문학 연구를 수행하는 보편적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논문이나 단행본 출간에 있어서 공동 집필

형식이 있지만, 그 때의 ‘공동’이란 결과물을 공동으로 낸다는 것에 가깝지 연구 수행에 있어서 다수 연구자의 실질적인 협업이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인문학 연구가 지향하는 가치와 그로부터 드러나는 연구수행 양상은 이와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 개인의 단독적 작업보다는 연구 집단 내에서의 협업 체제가 더욱 강조되며, 연구결과물만큼 연구 수행 가운데 이루어지는 연구절차 또는 연구과정이 하나의 중요한 연구 요소로 평가받는다. ‘수신사 자료 DB 편찬 프로젝트’의 경우 이와 같은 맥락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과정상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정리해봄으로써 디지털 인문학 연구의 특성에 대해 조금이나마 짐작해볼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두 번째는, 디지털 인문학의 영역에서 DB 구축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시각화 콘텐츠 구현과 DB 구축이 어떠한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해당 프로젝트에서 능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이러한 이론적 차원의 문제의식을 현실에 연장하여 살펴볼 경우, 2016년 현재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고 있는 ‘토대연구지원사업’의 DB 구축 맥락과 ‘인문전략연구사업’ 내 ‘디지털 인문학 사업’에서 시도될 수 있는 DB 구축의 맥락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도 연계된다. 단순히 접근할 경우 ‘토대연구지원사업’에 배속되어 기초자료 DB를 구축하는 연구와 ‘디지털 인문학 사업’에 배속되어 이미 구축된 DB를 바탕으로 시각화 콘텐츠를 구현하는 작업은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시각화 콘텐츠를 구현해야만 그것이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 디지털 인문학 연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개략적으로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현재 시점의 여러 인문학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토대연구지원사업’에서 이루어지는 DB 구축을 디지털 인문학

연구의 일환으로 보지 못하고, ‘디지털 인문학 사업’에서 진행되는 시각화 콘텐츠 구현만을 디지털 인문학 연구의 핵심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러나 실제 DB 구축과 시각화 콘텐츠 구현은 별개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 의미 있는 시각화 결과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결과물이 가능할 수 있게끔 초기 대상자원 분석에서부터 섬세한 접근이 요구되며, 그러한 데이터에 대한 치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DB 설계 및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수신사 자료 DB 편찬 프로젝트’의 경우 수신사와 관련된 기초자료 DB를 구축하고 그것을 웹상에서 결과물로 제공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지만, 그로부터 구현할 수 있는 시각화 결과물을 DB 설계 과정에서 함께 고민하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시도되고 있는 기초자료 DB 설계 과정이 시각화 콘텐츠 구현을 어느 정도로 반영하고 있는지 일부 검토해봄으로써,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서 DB 구축이 지니고 있는 함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거칠게나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인문학 연구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서 DB 구축에 반영되어야 하는 문제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유기적으로 종합되고, 이를 토대로 실제 연구가 진행된다면 그 과정과 결과는 모두 매우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두 가지 맥락의 이야기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봄으로써 디지털 인문학 연구의 가치와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 2. 修信使 자료 연구수행 방향

디지털 인문학 연구는 연구방법론에 있어서, 기존 인문학 연구방법론에

바탕을 두되 추가적으로 디지털 방법론을 적용한다. 디지털 방법론의 적용은 최종적으로 아날로그 연구 환경에서는 얻을 수 없는 DB라든지 시각화 콘텐츠와 같은 디지털 환경 기반의 연구 결과물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성격의 결과물이 대개 디지털 인문학 연구의 핵심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결과물만큼이나 해당 결과물을 산출하기까지의 연구수행 과정 또한 디지털 인문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디지털 인문학 연구수행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짚어볼 수 있는데, 이는 한편으로 디지털 인문학의 정체성을 정의함에 있어서 연구결과물보다 더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뚜렷하다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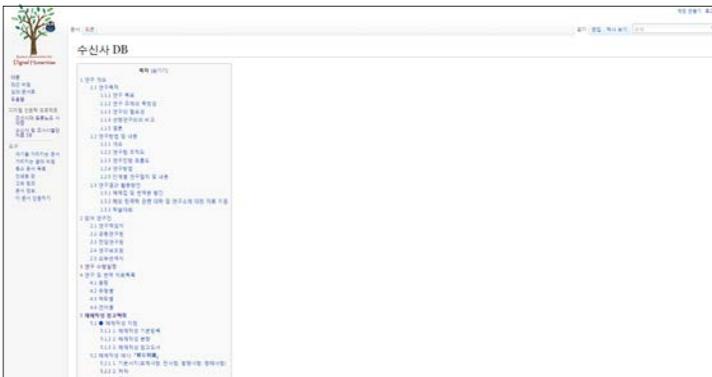
그 가운데 하나는 디지털 환경에서 연구가 가능해짐으로써, 개인이 홀로 연구를 수행하던 기존 인문학 연구방식에서 탈피하여 연구자 다수의 공동협업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이다. 개인이 홀로 고민하고 문제의식을 확장해나가던 기존 인문학 연구수행에서 벗어나 동일한 주제에 관해 여러 개인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함으로써 공동의 연구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사실은, 곧 연구 결과의 질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여러 분야의 융합 연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예컨대 개인적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할 경우, 해당 개인이 학습해온 단일 전공 분야에 대한 이해만을 토대로 연구대상을 바라볼 가능성이 크다. 물론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단일전공 분야의 연구방법론을 심화·적용하는 연구 또한 그 가치는 분명하다. 여타 전공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도의 전문적 시각과 방법론을 적용할 경우 그러한 연구에서 생산될 수 있는 대상주체에 대한 새로운 지식의 발견이 갖는 의미 또한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개별 영역의 연구자들이 각자의 전공에서 다루어지는 방법론만을 연구에 적용하는

풍토가 지속될 경우, 지식의 연계 및 확장성 차원에서 해당 주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갖추어지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동일한 주제에 대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타 전공자가 이해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연구결과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땅을 깊이 파려면 동시에 넓게 파야하는 과정이 함께 요구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단일 영역의 연구시각에서 벗어나 여러 시각이 유기적으로 조합된 연구수행이 갖는 가치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수신사 자료 DB 편찬 프로젝트’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료의 대부분은, 근대전환기 조선과 일본 양국 지식인들의 폭넓은 교류를 담고 있기에, 기본적으로 자료의 성격이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다. 정치, 외교, 문학, 역사, 풍습, 제도, 교통, 통신, 과학, 군사 등 근대전환기 당시의 문화사 및 사회사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관련 자료에 담겨 있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해당 자료는 대부분 한문이나 일본어로 기록되어 있다. 한문을 해독하거나 일본어를 해독할 수 없을 경우 자료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접근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연구결과물이 디지털 형식의 DB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디지털 환경과 컴퓨터 기술에 대한 기본적 이해 또한 요구된다. 자료 자체가 지닌 스펙트럼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를 종합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해독과 편찬 영역의 다양한 이해가 필요한 만큼 각기 다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연구원들의 긴밀한 협업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이는 기본적으로 해당 프로젝트가 학제 간 연구를 필요로 하는 과제임을 의미하며, 연구자 개인의 단독적 연구 수행이 불가능한 것임을 시사한다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집단은 국문학, 한문학, 일문학, 역사학 등의 자료를 다룰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전공 연구원과 DB 구축에 필요한 기술적 안목을 갖춘 해당 분야의 연구원 등 여러 학제간 스펙트럼을 지닌 인력풀

로 구성되어 있다. 가령, 일문학 연구자의 경우 국내 및 일본에서 다년간 수신사 자료를 수집하며 근대전환기 이루어진 조일외교에 대한 기초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역사학 연구자의 경우 조선시대 사행록을 꾸준히 수집하여 사행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해왔다. 한문학 연구자의 경우 여러 유형의 한문 자료를 번역한 경험을 토대로 한문 자료를 해독하는 기초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국문학 연구자는 일본어와 한문 그리고 국문 사이에 존재하는 언어적 간극을 이해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번역에 적용할 수 있는 안목을 지니고 있다. 추가적으로 인문정보학 연구자는 디지털 환경에서 여러 형식의 자료를 종합함에 따라 나타나는 정보의 무질서한 산출을 다듬고 정리할 수 있는 컴퓨터 기술을 이해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연구자들이 불협화음 없이 효과적으로 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영역의 지식들이 연구수행 가운데 막히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플랫폼이 필요하다.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서는 해당 과제가 지닌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이 협업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데, 수신사 자료 DB 편찬의 경우 위키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KADH의 디지털 인문학 프로젝트 페이지 가운데 수신사 자료 DB wiki 화면<sup>2)</sup>〉

위키는 위키(Wiki)라는 이름의 소프트웨어(Software)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웹 사이트를 가리킨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웹 브라우저에서 마크업(Markup) 언어인 위키 문법을 사용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통 주제에 대해 함께 문서를 작성하고 해당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협업 환경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이다. 위키 사이트에서 작성된 위키 문서는 기본적으로 하이퍼링크(Hyperlink)를 통해 연결된다. 하이퍼링크는 문서 내에서 정의된 특정한 정보를 여러 맥락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자유롭게 부여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정보가 다른 여러 주제와 연결될 수 있게끔 유도하기 때문에, 협업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위키 페이지를 작성할 시 그에 대한 작성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단일 연구자의 참여 정도가 개별적 차원에서 팀 전체의 연구 진행에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였는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공동의 협업 가운데서도 단일 연구자의 개별 연구 맥락이 갖는 성격과 가치 또한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수신사 자료 DB 편찬 프로젝트’에 참여중인 연구원들은 매주 윤독 모임을 통해 번역문과 원문을 상호 감수하고, 이를 토대로 자료에서 드러나는 여러 정보를 취합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그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위키를 활용하고 있다. 연구원 누구나 윤독 과정을 통해 도출된 수신사 관련 정보를 위키 페이지로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된 문서가 제공하는 정보에 관하여 여타 연구원들 또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해당 정보를 원하는 맥락에서 누적·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 효과적인 디지털 인문학 연구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공동협업이 가능하다는 측면 외에 디지털 인문학 연구 수행과정이 지니

---

2) [http://www.digerati.kr/mediawiki/index.php/수신사\\_DB](http://www.digerati.kr/mediawiki/index.php/수신사_DB)

는 또 다른 특징은, 인문학 연구자가 디지털 연구방법론을 숙지하고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를 넓힘으로써 연구대상을 바라보는 학문적 시각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기존 인문학 연구의 경우 아날로그 환경에 토대를 둔 전통적 학문방법만이 꾸준히 적용되어 왔고 지금 현재도 그러한 접근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다루어져 온 지식이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되고 그럼으로써 다시금 새로운 지식으로 파생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갖추는 것이 연구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이해라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며, 그러한 학습과 연구를 '기초'가 아니라고 생각할 연구자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러한 기초적 차원의 연구방법론 숙지가 문제가 아니라, 오직 그러한 형태의 접근만이 '기초'적인 것을 넘어서서 '옳은' 것으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는 학문적 패러다임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토마스 쿤은 그의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정상과학(定常科學)'의 성립 과정을 통해 자연과학의 '패러다임' 개념을 강조하였다. 쿤의 언급에 따르면, 자연과학의 경우 기존의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 간의 역학 관계가 분명하다.<sup>3)</sup> 어떠한 패러다임도 영원히 지배적일 수 없으며, 현재의 패러다임이 해결하지 못하는 외부의 문제들이 늘어나거나, 패러다임 내에 자체적으로 정리되지 않는 논리가 지속될 경우 해당 패러다임은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예컨대 '지동설-천동설', '뉴턴 역학-전자기학' 등과 같은 대립은 바로 그러한 경우의 전형적 예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대립을 거쳐 새로운 패러다임이 힘을 얻고 그로부터 정상과학이 정립되어 나가는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것이 자연과학이며, 그러한 과정이

3) 토마스 쿤 지음·김명자 홍성욱 옮김, 『과학혁명의 구조』, 까치글방, 2013. 148-163면

또한 과학 내부로부터의 위기를 자연스레 극복하게끔 만든 원동력임을, 굳은 강조한다.<sup>4)</sup>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여타 학문과 비교하였을 때 자연과학에서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학문적 방법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지식을 정립함에 있어서 객관적 측정으로서의 ‘정량화(Quantification, 定量化)’ 개념을 적용하고, 그에 대한 실증적 검토로서 ‘실험(Experiment, 實驗)’이라는 절차를 갖는 자연과학이기에, 매우 엄밀한 차원에서 패러다임 간의 논리적 모순을 들여다보고 그로부터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냄이 가능한 것이다.

자연과학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인문학은, 정립된 지식의 ‘객관성’을 증명하는 절차 또는 대립되는 두 가지 지식 사이에서 상대적 타당성을 해명하는 ‘객관적 기준’으로서의 요소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정량적(Quantitative, 定量的)인 시각에 기초하여 대상을 들여다보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성적(Qualitative, 定性的)인 관점에 더욱 초점을 두고 대상을 바라보고자 하고, 실제 그러한 시각에 근거하여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또한 정성적 접근을 심화해나가는 것이 자연과학에 상대적인 학문으로서 인문학이 지녀야 할 당위(當爲)이자 본질적 역할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은 앞서 언급하였던, 자연과학에서의 패러다임 전환과 같은 양상이 인문학에서는 일어나기 어렵게 만든다.

물론 인문학 또한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학문적 패러다임을 지닌다. 인문학 또한 특정한 학계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믿음이나 가치, 방법과 같은 요소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모여서 학문적 정합성을 제공하고 해당 학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이다. 또한 시대에 따라 그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며, 그에 따라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

---

4) 앞의 저서. 275-292면

적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인문학 또한 패러다임을 갖고 패러다임의 전환적 양상을 겪기는 하지만, 두 학문에서 정의되는 패러다임과 패러다임 전환 양상의 성격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정량적(Quantitative, 定量的) 접근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자연과학의 패러다임 전환과 달리 인문학의 패러다임 전환은 정성적(Qualitative, 定性的) 관점의 변화로부터 출발한다. 이는 ‘자연’을 연구대상으로 삼느냐, ‘인간’을 연구대상으로 삼느냐의 문제로부터 기인한다. 정량화 과정과 실험 절차를 토대로 자연이 지닌 ‘일반적’ 원리 또는 ‘보편적’ 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연과학의 방향성과 달리, 인문학은 정성적 시각에 입각하여 인간이 지닌 ‘단독적’ 실존 또는 ‘특수적’ 환경을 드러냄으로써 상대적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고유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향이 더욱 강하다.

이러한 요소로 인해 자연과학과 달리 지식의 정량화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 인문학이 지닌 고유한 학문적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학문’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의 관점과 관련하여 다소 복잡한 논의를 낳을 여지가 있겠으나, 그것과 별개로 그러한 태도는 인문학을 바라보는 지나치게 협소한 시각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엄밀히 이야기할 경우 지식의 정량화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인문학’이 아니라 ‘인문적인 것’이다. 인간의 삶은 양적인 기준을 토대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니기에 그로부터 파생되는 ‘인문적인 것’ 또한 엄밀히 접근할 경우 정량화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인문적인 것’을 연구하는 학문인 ‘인문학’은, 그것이 학문이기에 그로부터 파생된 지식을 어떻게 정리하고 그로부터 유의미한 학술적 결과를 이야기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지식의 창출·유통 차원에서 그 나름의 정량화 체계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인문 지식은 애초 정량화될 수 없는 것이기에 연구 단계에서 굳이 정량화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수동적 관념에서 벗어나, 인문학 연구에 정량화 개념을 도입할 시 인문 지식이 지닌 외연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학문적 가치는 무엇인지 능동적으로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사유는, 궁극적으로 인문 지식을 정량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결과론적 질문에서도 벗어나는 것이다. 실제 연구 결과에서 정량화 시도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의 여부와 별개로, 인문 지식을 어떻게 정량화하고 그로부터 어떠한 의미를 이끌어낼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오히려 기존 인문 지식을 연구하던 시각이 내포하지 못했던 새로운 연구 관점이나 연구 가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인문학 연구를 수행 가능하게끔 도울 수 있는 매개가 곧 컴퓨터 기술에 바탕을 둔 디지털 환경이다.

이날로그 체제에서 디지털 체제로의 연구 환경 전환은, 앞서 쿤의 언급을 인용할 시 새로운 학문적 패러다임의 등장과도 같다. 정성적인 맥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인문학 연구에, 컴퓨터 기술과 웹 환경을 바탕으로 정량적인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연구방법론이 담아내지 못했던 시각과 경험을 인문학 연구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방법론에 익숙한 인문학 연구자들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디지털 인문학이 매우 낯설고 이질적 인상을 불러일으키는 연구방법인 것 또한 사실이다. 이로 인해, 그에 대한 충실한 검토 없이 기존의 전통적 연구방법론만이 ‘옳은’ 것이고, 새롭게 등장한 연구 패러다임은 무조건 ‘옳지 못한’ 것이라고 여기는 태도를 종종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시각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인문학 내부에서 디지털 인문학을 낯설게 바라보고 그것을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으로 쉽사리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은 곧 현실에서 지식이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커뮤니케이션 매개

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언급하고자 한다. 커뮤니케이션 매개는 지식의 개념적 지형을 전제하는데, 기존 커뮤니케이션 매개를 벗어난다는 것은 전통적인 지식 지형을 벗어나 새로운 지형 위에서 사고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인문학 내부에서 정성적(Qualitative, 定性的) 관점의 변화는 오랜 기간 한 방향으로 지식이 축적됨으로 인해 그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촉발시키는 것은 지배적 커뮤니케이션 매개의 전환에 근거하는 경향이 크다. 흥미롭게도 문학 연구자이자 동시에 미디어 이론가로 여겨지는 매클루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은 언급을 발견할 수 있다.

텔레비전 영상이 가져오는 과도한 촉각 효과들에 대해, 단순히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으로 대처할 수는 없다. 올바른 진단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생각해 보면, 기존의 문자 및 시각 세계가 텔레비전과 비슷한 깊이와 구조적 접근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처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발전 양상들에 대해 재래식 접근법을 고집한다면 우리의 전통 문화는 스콜라주의가 16세기에 그러했던 것처럼 휩쓸려 없어질 것이다. 복잡한 구어문화로 무장한 스콜라 철학자들이 구텐베르크의 문자 기술을 이해했었다면, 그림을 뒤로 물러나게 하고 단순한 시각적인 문서라는 것에 교육이라는 기획을 떠맡기는 대신, 문어 교육과 구어 교육을 새롭게 종합해 낼 수 있었을 것이다. 구어적인 전통에 사로잡힌 스콜라 철학자들은 인쇄라는 새로운 시각적 도전에 대처하지 못했으며 그에 따른 구텐베르크 기술의 확장이나 외파는 여러 측면에서 문화의 궁핍화를 초래했다.<sup>5)</sup>

매클루언은 위의 언급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매개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

5) 마셜 매클루언 지음·김상호 옮김,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151면

던 스콜라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스콜라주의는 11세기에서 15세기까지 부흥했던 중세 서양의 철학사조이다.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성을 토대로 하여 그와 같은 신앙의 영역을 논리적으로 증명·이해하려고 시도한 학문 체계가 스콜라주의이다. 14세기부터 태동된 르네상스의 인문주의 그리고 종교개혁의 흐름이 만들어낸 대조적 인상으로 인해, 스콜라주의가 마치 ‘구시대적인 종교학문’으로 여겨지는 시각이 다소 있으나, 실제 스콜라주의는 종교적 차원을 넘어서서 중세 지식인들의 학문적 활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그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논리학과 같은 지점에서는 근대 철학 형성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었다. 5세기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유럽에서 학문적 표준으로 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던 스콜라주의가 구텐베르크의 문자 기술을 이해하지 못해 흔적도 없이 ‘휩쓸려 없어져’ 버렸다는 매클루언의 어조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인쇄술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구어 중심으로 저장되고 전승되던 지식은 인쇄술이 등장함으로써 문어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필사본을 베끼던 필경사가 사라지고 인쇄본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직업인 인쇄사가 생겨났으며, 추가적으로 필사본을 소규모로 취급하던 서적상이 쇠퇴하고 인쇄본을 대량으로 유통하는 출판업자가 나타나게 되었다. 필경사가 사라지고 인쇄사가 등장하게 된 것은, 기술 전환에 따라 직업 변화가 이루어진 결과적 양상 정도로 해석 가능하다. 그보다 더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은, 서적상에서 출판업자로의 변화가 초래한 지식 유통 체계의 전환이다. 인쇄를 통해 서적이 광범위하게 유통됨에 따라, 필사본을 통해 소규모로 전래되어 온 지식의 정의와 형식이 바뀌게 되었고 그 가운데 스콜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신학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인쇄가 산문 증가에 끼친 영향은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강조한 것이었다.

고대 문명인,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승배는 타락과 절망에 대한 지각을 강조했고, 엘리자베스 시대를 대표하는 베이컨은 이를 공격했다. 종교 개혁의 권위 공격과 성서 중시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대한 공격과 과학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낳았다. 성서적 신앙은 히브리어와 고전 전통을 융합하려는 시도를 좌초시켰다. 과학은 ‘분리(break)’의 결과로 등장했다. 정신보다 자연에 대한 관심이 책보다는 사물에서 얻는 진리를 강조했다. 천문학에서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의 발견, 지리학에서 콜럼버스의 발견, 자기학에서 길버트의 발견, 하비의 혈액 순환 발견은 책과 대비되는 과학과 자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sup>6)</sup>

위 인용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인쇄술을 통해 산문 중심의 사유가 확산되고 각 나라의 방언으로 서술된 성서가 보편화됨에 따라, 기존 신학적 지식 체계의 보편성을 뒷받침하고 있던 구술 중심의 표준 형식에 대한 의문이 점차 쌓이게 되었다. 그리고 기존 지식을 바라보던 시각에 의심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 것이다. 매클루언의 말과도 같이, 구어체계에 근거한 기존 연구 방법론을 답습하였을 뿐 인쇄술의 발명으로 인해 생겨난 문자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스콜라 철학자들은, 기존 구어 중심의 학문 체계에서 얻어낸 가치 있는 결과들을 문자 체계 중심의 교육환경에서 온전히 재매개화(remediation)<sup>7)</sup>하지 못하였다. 기술 변화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지식 개념이 변화하며 추가적으로 변화한 지식 개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 체계의 표준 또한 변화하는 양상이 발생함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다각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기존의 방식만을 고

6) 해럴드 A.이니스 지음·김문정 옮김, 『제국과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254면

7) ‘재매개화(remediation)’ 개념은, ‘제이 데이비드 볼터 지음·김익현 옮김, 『글쓰기의 공간』,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35면 참조

수하는 태도는 매우 현명하지 못한 자세임을 알 수 있다.

컴퓨터 기술과 인터넷 환경이 학문적 차원에서 소용되고 있는 현재 시점은 곧 지식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과도기에 해당된다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재의 환경에서 인문학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명되었던 15세기 유럽의 학문적 환경과 매우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다 할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컴퓨터 기술과 인터넷 환경이라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매개가 최근 등장함에 따라 이전에는 시도되기 어려웠던 ‘지식의 정량화’에 대한 고민이 인문학의 영역에서도 시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인문학 영역에서의 ‘빅데이터’ 접근과 ‘시맨틱 웹’에 대한 연구가 바로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차원에서의 인문학적 접근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그에 따라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학문적 영역들은 기존에 논의되었던 지식의 맥락을 연장하거나 발전시키지 못하고, 매클루언의 말처럼 해당 영역의 ‘궁핍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미디어인 컴퓨터 기술과 인터넷 환경을 이해하는 시각을 갖추는 작업은, 곧 그와 같은 미디어를 접하기 이전에 존재하였던 학문적 방법론을 더욱 발전적으로 다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전통적인 인문학적 시각에서 바라보던 자료(data)와 정보(information) 그리고 지식(knowledge)의 개념과, 컴퓨터 기술과 인터넷 환경에서 다루어지는 자료(data), 정보(information), 지식(knowledge)의 맥락은 그 이해의 범주와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인문학자가 컴퓨터 기술과 인터넷 환경을 이해하여 그것을 학문적 연구에 적용한다는 것은, 전통적인 인문 지식의 외연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인문 지식이 지니고 있던 기존의 외연(denotation)에 새로운 시각을 접목함으로써 한층 섬세하고 발전된 인문 지식의 내포(connotation)를 생성하는 과정

임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신사 자료 DB 편찬 프로젝트’의 경우, 연구가 시작됨과 동시에 전체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한 DB 편찬교육이 인문정보학 연구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이는 자료를 번역·연구하는 과정과 DB를 편찬하는 절차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수행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며 추가적으로, 자료수집 및 번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료 해석의 영역에서 아날로그적 방법론을 탈피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자료를 들여다보기를 요구하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해당 프로젝트는 DB 편찬교육 내용 가운데서도 여러 문헌 자료를 체계화해서 연결할 수 있는 전자문서 형식인 XML 작성을 모든 연구원이 기본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그 기본 방침을 정하였다.

XML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아날로그 환경에서 통용되던 전통적 문식(文識, literacy)의 체제에서 벗어나 디지털 환경의 문식을 익힘으로써 연구 대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확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디지털 방법론을 새롭게 학습함으로써, 대상 자료를 바라본던 기존 아날로그적 시각을 탈피하여 보다 폭넓은 안목으로 자료를 재해석해낼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다.

예컨대 대상 자료를 번역하는 동시에 그것을 XML 기반의 전자문서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번역과정에서 조사·추출된 문맥요소(Contextual Elements: 인물, 공간, 시간, 문헌, 개념 등 텍스트 내에서 유의미한 문맥을 형성하는 키워드)를 색인화하고, 미리 설계된 온톨로지에 따라 문맥 요소 사이의 관계성을 정의하는 작업이 선행된다. 이 과정은 각 전공 분야의 연구자들로 하여금 기존 아날로그 방법론에서 다루어지던 해당 분야의 인문 지식을 외연적 차원에서 재구성해보게끔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가령 문학을 전공한 연구자는 기존 문학 연구의 전통적 방법론에서 벗어나 문

헌에서 발견 가능한 문학적 지식의 새로운 가치를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어학을 전공한 연구자는 여러 문헌들로부터 수집 가능한 언어적 사례 즉, 통사(統辭)나 화용(話用)들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적 변별을 통시적으로 그리고 공시적으로 자유롭게 배치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관계를 들여다보는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역사를 전공한 연구자는 사료로서 문헌이 지닌 전통적 가치가 어떠한 맥락에서 현대적 의미를 얻을 수 있는지 새롭게 곱씹어볼 수 있는 과정과 대면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문제의식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기존 아날로그 인문학 방법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던 인문 지식의 맥락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와는 대조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재구성될 수 있는 인문 지식의 새로운 가능성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한 사유해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번역 대상 원문을 XML 기반의 전자문서로 편찬하여 입력하는 과정에서, 원문의 모든 문장에 대응하는 현대 한국어 번역문을 동일한 스키마(Schema)의 XML 문서로 작성함으로써 원문의 서술과 번역문의 서술을 동기화시킬 수 있다. 이는 번역 과정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발생 가능한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절차는 또한 해당 번역에 참여하는 연구원들로 하여금, 훌륭한 번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 없이 고민하게끔 유도하는 역할 또한 수행한다. 원문의 각 문장이 지닌 본래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충실하게끔 하되, 동시에 해당 문장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만들어지는 문단의 종합적 의미 또한 함께 고려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연구원 각자가 번역의 충실성을 가시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확인하게끔 만드는 훌륭한 유도 기제(機制)가 되는 것이다.

```

<자료 ID="3928828789">
  <자료요약>
    <대표자료명>최성대(崔成太)와 일본학자들 사이에 오간 필담록(筆談錄)</대표자료명>
    <한글자료명>N</한글자료명>
    <한자자료명>N</한자자료명>
    <가나다자료명>가나다자료</가나다자료명>
    <영문자료명>N</영문자료명>
  </자료요약>

  <상위정보>
    <작성정보>
      <작성인을 성명>** 국학**>류헌태</작성인명>
      <작성시기>
        <작성년>1801</작성년>
        <작성월>6</작성월>
        <작성일>18</작성일>
      </작성시기>
      <작성형태>XML<작성연구><작성형태>
      <자료출처 소장>*기관*>영세대 수신사자료DB 연구팀</자료출처>
      <자료사건>
        <이미지>승위*1* ur1=*f*.jpg>최성대와 일본 학자들간에 이루어진 필담록</이미지>
      </자료사건>
      </작성정보>
      <작성특이>이 필담록은 1881년 조사시절단으로 보관된 조사 명세영(曁世英)의 수령한 최성대(崔成太)와 일본 학자 미시마 주슈(三島中洲, 이름은 鶴), 카와타 베키잔(川北梅山)간에 이루어진 필담집이다.
    </작성정보>

    <문서정보>
      <작성인을 성명>**남* 국학**일본* 국학**>홍계**>역할**>한학자</작성인명>미시마 주슈(三島中洲, 鶴)</문서인명>
      <문서시기>
        <문서년>1881</문서년>
        <문서월>7</문서월>
        <문서일>9</문서일>
      </문서시기>
      <문서문장>일본</문서문장>
      <문서문자>한자</문서문자>
      <문서성격>사적개인</문서성격>
      <문서유형>필담집</문서유형>
      <문서형태>본문</문서형태>
      <문서체계>본문</문서체계>
      <문서특이>N</문서특이>
    </문서정보>

    <내용정보>
      <내용성격>영역<사건>조사시절단 보관 교류</내용성격>
      <내용시기>
        <내용년>1881</내용년>
        <내용월>7</내용월>
        <내용일>9</내용일>
      </내용시기>
      <내용인물>
        <인물 ID="choise">승위*1* 성명*남* 국학**조선* 국학**>홍계**>역할**>시절단 수령관</인물명>최성대</인물>
        <인물 ID="mishima">승위*2* 성명*남* 국학**일본* 국학**>역할**>한학자</인물명>미시마 주슈</인물>
        <인물 ID="kawabekizan">승위*3* 성명*남* 국학**일본* 국학**>역할**>한학자</인물명>카와타 베키잔</인물>
      </내용인물>
      <내용공간>
        <공간 ID="kixishouseIntokyo">승위*1* 한자영**>가나영**>공간정보**>미시마의 도쿄 자택</공간>
      </내용공간>
      <내용국학>
        <국학 ID="kaha">승위*1* 국학**교류* 한자영**>가나영**>집행대</국학>
        <국학 ID="seok">승위*2* 국학**교류* 한자영**>가나영**>세록계</국학>
        <국학 ID="chunghun">승위*3* 국학**교류* 한자영**>가나영**>중훈부</국학>
      </내용국학>
    </내용정보>
  </상위정보>
  
```

〈현재 연구 중인 수신사 자료 XML 전자문서의 예시 화면〉

그리고 이와 같은 양식의 XML 기반 전자문서 기술은 모두 ‘시맨틱 웹 인문 지식 구현’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수신사 자료 DB 편찬’ 프로젝트는 연구자 개인 수준에서 그리고 단일 프로젝트 수준에서의 연구 성과만을 목 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관련 분야에 있어서 2차, 3차 연구로 그 성과가 확대될 수 있게끔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디지털 인문 학에서 강조되는 ‘공유와 소통’의 연구 가치를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 3. 修信使 자료 DB 편찬 방향

인문학 연구의 기초적인 작업은 주제 선정을 통한 자료 수집에서 시작된다. 어떠한 주제가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해당 영역과 관련된 적정 수준 이상의 자료 검토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고려할 때, 주제 선정과 자료 수집의 단계를 기계적으로 나누어 접근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제가 정해지고 해당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 수집이 보다 본격화되어 나갈 경우 이와 동시에 자료를 분류해나가는 작업이 시작된다. 자료의 분류는 효과적인 연구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한 단계에 해당한다. 대상 자료를 얼마나 치밀하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연구 결과물의 섬세함 또한 영향을 받게 된다. 자료 수집과 분류 작업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진행되고 그에 따라 연구 방향과 방법이 정립되면 연구는 본격적인 단계로 진행된다. 수집된 자료들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효과적으로 배치되고 그에 맞추어 대상 주제에 대한 논리가 구축된다. 연구 결과물은 그와 같은 주제의식, 대상 자료, 연구자의 논리 등이 결합된 형태로 산출된다. 해당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균형이 매우 중요하기에, 어느 한 요소가 취약하거나 특정 요소에 지나친 편중이 발생할 경우 결과물이 지닌 연구 가치는 낮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論語』에서 공자가 강조하였던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와 같은 언명처럼, 학문 연구에 있어서 보편성과 특수성 차원의 균형적 시각을 갖추는 것은 시대와 공간을 불문하고 연구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인문학 연구의 수행 과정 또한 초기 주제 선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해나간다는 측면에서, 앞서 서술한 기존 인문학 연구와 진행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수집 과정을 통해 자료가 일정 이상 누적될 경우 해당 자료들을 디지털 환경에서 DB화 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효과적인

DB 구축을 위해서는 개별 자료가 지닌 특성을 잘 파악하여 분류하고 그 가운데 각 자료 간에 존재할 수 있는 관계성을 해명해야 한다. 이러한 초기 DB화 단계는 온톨로지 설계를 통해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연구 방향과 방법이 선정된다. 그리고 연구 방향과 방법이 정해질 경우 그에 따른 논리가 구축되고 동시에 해당 연구의 성격이 파악되는데, 결과물이 어떠한 형태를 취할 것인가의 문제, 즉 데이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해당 데이터를 어떻게 배치하고 시각화할 것인가의 논의가 함께 이루어진다. 이는 기존 인문학 연구 수행의 차원에서 짚어보아도 그 문제의식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인문학 연구에서 대상 자료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얼마나 치밀하게 대상을 분석하고 분류하느냐에 따라 연구 결과물의 섬세한 정도가 달라진다. 디지털 인문학 또한 DB 설계 단계에 있어서 대상을 얼마나 잘 분석하고 이해하였는지에 따라 데이터 배치와 활용의 맥락이 달라지며, 이는 곧 해당 데이터를 기초로 재현(representation)되어야 할 시각화 결과의 질적 차원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보았을 때 디지털 인문학에서 초기 DB 구축 단계와 결과적 차원의 시각화 콘텐츠 구현은 별개라고 생각할 수 없다. 물리적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DB 구축은 연구초기 단계에 이루어지고 시각화 콘텐츠는 연구 결과 단계에서 산출된다는 측면만 바라볼 여지가 있는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양상을 끝이끝대로 수용할 경우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 대한 굉장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DB 구축은 DB 구축대로, 시각화 구현은 시각화 구현대로 각 연구를 개별화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연구수행 계획에서 생겨날 수 있는 오류는, 연구가 제대로 수행되기 어렵게끔 유도한다. 더 나아가 그러한 잘못된 시각은 디지털 인문학 연구가 지닌 본질적 맥락인 인문학적 접근을 무화시키고 오히려 화려하게 포장된 디지털 형식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마치 디지털 인문학의

본질인양 그 정체성을 몰아갈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인문학 연구와 관련하여 DB 구축 영역과 시각화 구현 영역의 관계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여지는,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한 인문학 연구과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많이 생겨나고 또한 운용되고 있는 최근의 실제와도 결부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가령 ‘수신사 자료 DB 편찬 프로젝트’는 현재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토대연구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연구가 진행 중이다. ‘토대연구지원사업’의 경우 사전이나 자료 또는 총서와 같은 형식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DB를 구축함으로써 인문학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토대자료를 갖추고자 하는 것을 핵심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축된 DB의 내용과 기능이 얼마나 풍부한가의 맥락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와 컴퓨터 기술의 활용이 연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토대연구지원사업’ 외에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인문학 사업으로서 최근 한국연구재단에서 기획하고 지원을 하기 시작한 ‘인문전략연구사업’ 내에 ‘디지털 인문학 사업’을 거론할 수 있다. 2014-2015년 까지만 해도 ‘인문학 대중화사업’ 내의 소규모 기획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디지털 인문학의 가치와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016년부터 지원규모와 기간이 확대된 사업이 ‘디지털 인문학 사업’이다. 흥미로운 것은 2014-2015년에 걸쳐 해당 사업이 내걸고 있는 기치(旗幟, agenda)가 ‘시각화 콘텐츠 또는 디지털 콘텐츠 구현’이라는 사실이다. 아마도 기존 인문학과 비교하였을 때 디지털 인문학이 가질 수 있는 뚜렷한 특징이 시각화 결과물임에 근거하여 해당 요소를 부각시켜 표현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인문학 사업’과 ‘토대연구지원사업’에 배속된 프로젝트 들은 모두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그 공

통점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각기 ‘시각화 콘텐츠 구현’과 ‘DB 구축’이라는 슬로건을 내어 쫓으므로 인해, 각각에 적용되어야 할 디지털 인문학 연구의 방법론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디지털 인문학 연구 수행과정에서 ‘DB 구축’과 ‘시각화 구현’은 별개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DB 구축’은 어떠한 결과물을 시각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질 때 더 섬세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시각화 구현’은 대상 자료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분류하여 구축된 DB가 전제되지 않을 시 그 가치를 잃을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토대연구지원사업’은 ‘시각화 콘텐츠’를 결과물로 요구하지 않지만, 해당 사업에 참여중인 연구들의 경우 DB를 구축하는 가운데 ‘시각화 콘텐츠’를 고민해야 하며, ‘디지털 인문학 사업’은 섬세한 차원의 ‘DB 구축’을 결과물로 요구하지 않지만, 해당 사업에 참여중인 연구들의 경우 시각화 콘텐츠 구현에 대한 접근 가운데 치밀한 ‘DB 구축’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디지털 인문학 사업’에 참여중인 연구자들은 디지털 인문학 연구가 결과적으로 시각화 콘텐츠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크며, ‘토대연구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연구자들은 스스로의 연구를 디지털 인문학 연구가 아니라 단순한 DB 구축작업 정도로 치부해 버릴 여지가 있는 것이다.

‘수신사 자료 DB 편찬 프로젝트’는 현재 한국연구재단 주관 하의 ‘DB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대연구지원사업’에 편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최종적인 연구 결과물의 형태가 DB 형식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DB 구축’이라는 표면적 결과에 주목할 경우 해당 프로젝트가 갖는 디지털 인문학 연구로서의 성격이 열어질 여지가 있다. 학문적 연구로 여겨지기보다는 기술적 차원의 접근이 우선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수신사 자료 DB ‘구축’이 아니라 수신사 자료 DB ‘편찬’<sup>8)</sup>이라 명명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맥락과 관련이 있다. ‘구축’이라는 표현과 ‘편찬’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구축’이라는 표현은 주로 기술적 영역에서 논의되는 성격이 강하기에 인문학 연구자들이 그것을 수용하는 데 있어 다소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수신사 자료 DB 편찬 프로젝트’는 그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연구 초기부터 대상 자료로부터 추출 가능한 데이터 연구와 DB 구축 작업이 분리·이원화 되지 않도록 진행 중이다. 예컨대 텍스트를 모두 번역한 뒤에, 번역한 원고를 모두 모아서 다시금 DB 구축을 시도하는 방식의 분리된 연구를 지양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분리된 연구는 대상 자료의 기초 데이터 및 자료 간 존재하는 콘텍스트 분석의 성과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구축을 위한 구축 즉 형식적인 DB 제작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앞서 정리하였던, 시각화 콘텐츠 구현의 가능성을 DB 구축 단계에서 함께 고민할 수 있다는 맥락과도 연결된다. 번역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데이터 분석 및 정리를 통해 연구 의의가 구체화되고 그로부터 어떠한 성격의 결과물을 산출할 것인지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래는 1881년 조사시찰단의 일원으로 일본을 다녀온 심상학(沈相學)이 고종에게 올린 계문(啓文) 가운데 일부 내용이다. 4월 부산을 출발하여 일본으로 간 뒤 다시 7월 조선으로 돌아오기까지 4개월간의 여정

- 
- 8) 편찬(編纂, compilation)이라는 어휘는 동아시아의 전통적 미디어와 서양의 미디어 외연을 동시에 품고 있는 단어이다. 편찬의 내포는 다음의 정의를 참고하여 이해할 수 있다. “A compilation is a book, CD, or programme that contains many different items that have been gathered together, usually ones which have already appeared in other places.” (출처: Collins Cobuild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 단순히 서적의 형태로 자료를 모아 출간하는 물리적 절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간행물이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어떠한 형식을 취하든 그 안에 들어갈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포괄하여 묶어내는 일련의 의미적 과정이 ‘편찬’이라는 말로 정의됨을 알 수 있다.

이 경유지 기술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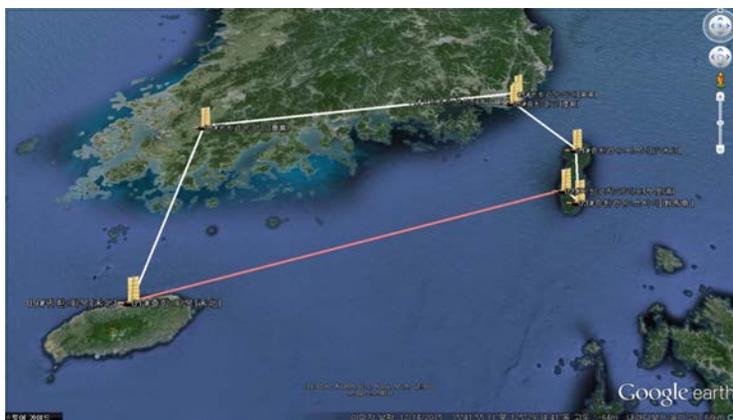
며칠 동안 채비를 갖추고서는 무리들을 따라 노정(路程)에 올랐습니다. 2월 14일 동래부(東萊府)에 도착하였습니다. 4월 9일 묘시(卯時)에 초량항(草梁港)에서 저들의 배 안네이마루(安寧丸)에 탔습니다. 닻을 올리고 동남방(巽)을 향하여 오륙도(五六島)에 닿으니 앞쪽 바다 70리에 풍랑이 심하게 일었습니다. 배를 되돌려 흑암(黑巖)앞 바다에 정박하였습니다. 10일 정오에 출항하여 유시(酉時) 초에 쓰시마(對馬島)에 이르렀습니다. 11일 축시(丑時) 정각에 출항하여 미시(未時) 정각에 나가사키(長崎)에 닿았습니다. 13일 출항한 배는 14일 신시(申時)에 아카마가세키(赤馬關)에 이르렀으며, 유시(酉時)에 닻을 올려 15일 술시(戌時)에 고베(神戸)에 닿았습니다. 17일 정오에 화륜차를 타서 미시(未時) 정각에 오사카(大坂)에 이르렀습니다. 20일 미시(未時) 정각에 화륜차를 타서 신시(申時) 초에 서경(西京, 교토)에 닿았습니다. 24일 오시(午時) 초에 화륜차를 타서는 정오에 비와코(琵琶湖)에 이르러 잠시 쉬고서는, 신시(申時)에 그대로 화륜차를 타서 술시(戌時) 초에 되돌아 고베에 이르렀습니다. 26일 유시(酉時)에 저들의 배 히로시마마루(廣島丸)를 탔는데, 27일 축시(丑時) 초에 출항하여 28일 사시(巳時) 정각에 요코하마(橫濱)에 이르렀으며, 신시(申時) 초에 수레를 타고서 에도(江戸)에 도착하였습니다.

7월 14일 오시(午時)에 에도(江戸)에서 여정을 돌려 출발하여 요코하마(橫濱)에 이르렀습니다. 16일 유시(酉時)에 저들의 배 나고야마루(名護屋丸)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18일 묘시(卯時) 정각에 고베(神戸)에 이르렀습니다. 저들의 상선이 우리나라 경내로 출발하는 것을 기다려 열흘간을 머물렀습니다. 28일 묘시(卯時)에 저들의 배 치토세마루(千歳丸)를 타고 출발하여 윤 7월 1일 인시(寅時) 정각에 나가사키(長崎)에 이르렀습니다. 2일 축시(丑時) 정각에 닻을 올려 신시(申時) 정각에 부산포(釜山浦)에 돌아와 정박하였습니다.<sup>9)</sup>

해당 자료가 지닌 두드러진 특징은, 날짜 단위의 구체적 여정과 경유했던 위치가 함께 서술되어 시간을 기준으로 한 여정 변화가 지도 위에서 동적 형식으로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에서 추출 가능한 경유위치와 날짜 데이터를 섬세하게 정리해야 한다. DB를 단순하게 구축하려 할 경우, date나 float과 같은 데이터 유형(datatype)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날짜와 위치 정보에 적용하여 간단하게 기입하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으나,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와 같은 지리정보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KML(Keyhole Markup Language)과 같은 지리정보 기술 언어를 이용하여 동적 형태의 시각화 콘텐츠를 지도상에서 구현하려 할 경우, 그보다는 더욱 섬세한 차원에서 데이터 구조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예컨대 날짜 데이터의 경우 음력(윤달 포함)을 기준으로 서술된 날짜 정보를 양력 기준에서 어떻게 표준화하여 데이터를 입력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심상학의 계문 외에도 문인들이 스스로의 여정을 기록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여타 자료에서 드러나는 날짜 정보를 일원화하여 정리할 경우 인물이나 시대 혹은 목적에 따라 일본에 다녀온 사행원들의 여정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지도를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치 데이터의 경우 기본적으로 각각의 데이터에 위도(latitude)와 경도(longitude)가 속성값으로 반영되어

- 9) “幾日倣裝 隨衆登途 二月十四日 抵東萊府 四月初九日卯時 自草梁港乘彼船安寧丸 揚錨羅針指巽 已到五六島 前洋七十里 風浪甚起 還泊黑巖前洋 初十日午正發船 西初抵對馬島 十一日丑正行船 未正抵長崎 十三日行船 十四日申刻抵赤馬關 西刻揚錨 十五日戌刻抵神戶 十七日午正乘輪車 未正抵大坂 二十日未正乘輪車 申初抵西京 二十四日午初乘輪車 午正抵琵琶湖 暫憩 申時仍乘輪車 戌初還抵神戶 二十六日酉刻乘彼船廣島丸 二十七日丑初行船 二十八日巳正抵橫濱 申初乘輪車抵江戶 七月十四日午刻自江戶還發抵橫濱 十六日酉時乘彼船名護屋丸 渡太平洋 十八日卯正抵神戶 爲待彼商船之出我境者 十日留連 二十八日卯刻乘彼船千歲丸 仍爲離發 閏七月初一日寅正抵長崎 初二日丑正揚錨 申正還泊釜山浦”  
—沈相學, 『慶尙道東萊暗行御史沈相學啓本』

야 하며, 서경(西京)과 같이 조선이나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 각기 다른 고유지명을 가리킬 수 있는 일반명사의 경우 그와 관련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구분하여 식별자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시각화 결과물을 염두에 둔 치밀한 관점에서 DB 구축이 이루어질 때, 아래와 같은 지도 기반의 데이터 시각화가 섬세하게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 표류노드 시각망 프로젝트<sup>10)</sup>에서 구현된 시각화 콘텐츠 결과물 예시〉

지도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시각화 외에 수신사 자료 DB 편찬에서 중요한 결과물로 재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니 바로 인물 네트워크이다. 19세기 후반 조일교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자료가 정리되는 해당 프로젝트의 특성상, 그러한 자료들과 연결되는 인물들에 대한 정보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조선의 김홍집(金弘集)이나 일본의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와 같이 여러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대표적 인물들의 경우, 그들이 여타 인물들과 교유한 흔적을 인물 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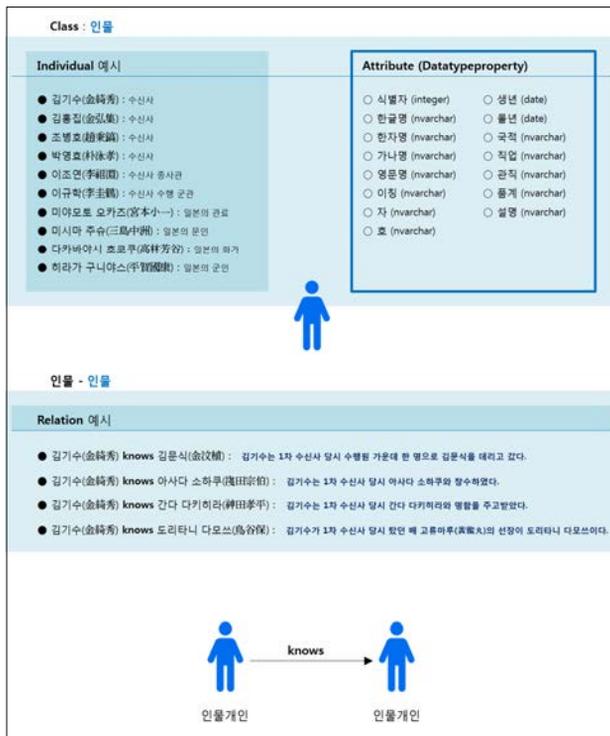
10) [http://www.digerati.kr/mediawiki/index.php/표류\\_노드\\_시각망](http://www.digerati.kr/mediawiki/index.php/표류_노드_시각망)

워크 정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면, 이는 19세기 말 조일관계의 특징적 국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김홍집과 그가 수신사행에서 만난 일본 문인들과의 교류 내용이 담겨 있는 사행록인 『조선국수신사김도원관계집(朝鮮國修信使金道園關係集)』에는 여러 인물들에 대한 각양각색의 이야기와 함께 김홍집이 그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까지 서술되어 있다.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다테 무네타카(伊達宗城), 다카스키 겐조(高須謙三), 곤도 마쓰키(近藤真鋤), 미야모토 오호쿠(宮本鴨北), 아사다 고레스네(淺田惟常), 이시바타 사다(石幡貞), 가와다 다케시(川田剛肅), 가메타니 세이켄(龜谷行), 사사키 시인(佐佐木支陰), 오카마츠 오고쿠(岡松辰), 와타나베 히로모토(渡邊洪基), 아토미 가케이(跡見氏瀧), 미야모토 고이치(宮本小一),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미시마 다케시(三島毅), 난마 쓰나노리(南摩綱紀), 사카타니 시로시(阪谷素) 등과 같은 일본인들과 하자이(何子莪), 주순수(朱舜水)와 같은 중국인들에 관한 정보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인물 정보와 관련하여 DB를 단순하게 구축하려 할 경우, 개별 인물명을 간단하게 테이블에 기입·정리하는 수준 정도로도 가능하다.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다테 무네타카(伊達宗城), 다카스키 겐조(高須謙三) 등을 포함한 여러 인물들이 『조선국수신사김도원관계집(朝鮮國修信使金道園關係集)』에서 언급됨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DB를 구축하더라도, 그것을 ‘인물 DB’라고 명명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단순한 형태의 DB는, 특정한 인물이 지닌 구체적 속성이 무엇인지, 단일 인물을 넘어서서 두 인물 사이 즉 인물 A가 인물 B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들 사이에서 드러나는 구체적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는 해명해주지 못한다. 가령 ‘수신사 자료 DB 편찬 프로젝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온톨로지 설계를 참고할 때, ‘인물’ Class의 경우 기본적으로 식별자 (ID), 한글명, 한자명, 가나명, 영문명, 이칭, 자(字), 호(號), 생년, 몰년, 국적, 성별, 성씨, 출생지, 직업, 관직, 품계 등 다양한 형식의 속성 항목을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특정 인물 A와 특정 인물 B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끔 두 인물 사이의 Relation 또한 명확한 명세를 통해 기술하는 방향으로 인물 DB를 구축 중이다. 현재까지 정리된 수신사 자료 온톨로지 설계에서 인물 Class에 해당하는 Individual과 Attribute의 유형 예시 및 일부 Relation 예시는 다음과 같다.



<수신사 자료 온톨로지 인물 Class 및 인물 간 Relation 설계 예시>



## 4. 맺음말

19세기 후반 여전히 사대교린(事大交隣)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근대적 외교 관계를 주도하지 못했던 조선과 달리, 메이지 일본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 정세 가운데서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들을 제국(帝國)이라는 새로운 테제(these) 하에 수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sup>11)</sup> 황국(皇國)에서 제국(帝國)으로의 국가적 테제 변화는 새로이 등장한 서구 열강들 사이에서 실리적 외교를 추구하게 함과 동시에 이미 정립되어 있던 기존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 방향 또한 돌려놓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가운데 형성된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예상할 수 없는 전환기적 양상 가운데서 발생하는 불균형적 특징들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이와 같은 시대사적 특징을 지닌 19세기 후반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선의 수신사 활동에서 파생된 자료들은 아직 온전히 파악되지 못하였으며 그에 대한 본격적 연구 또한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의 인용은 바로 그러한 수신사 연구와 관련된 현재의 상황을 뒷받침하는 서술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현재까지는 몇몇 수신사행록과 등록류, 소수 사행원들의 문집에 실린 시문 등 일부 조선측 자료를 중심으로 수신사와 조사시찰단을 연구해왔으나,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근대전환기 한일 교류나 조선 지식인의 신문물 수용 양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일부 급진 개화파를 제외하고 사절에 참여하였던 대부분의 조선 지식인은 성리학적 문인관료였기 때문에 근대 문물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은 어려웠으며, 자신들의 기준으로 가감하여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고, 조사시찰단

11) 이상성, 『‘제국’ 개념과 19세기 근대 일본』 『국제정치논총』 51, 한국국제정치학회, 2011. 72면

이후 사행단원의 수도 현저히 줄어 조선측 자료 자체도 많이 남아있지 않다. 모든 관계가 상호 수수관계라 한다면 이들 기록만으로 근대전환기 한일 양국의 상호 인식 및 조선인의 신문물 수용 양상을 온전히 추출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sup>12)</sup>

‘수신사 자료 DB 편찬 프로젝트’는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한계적 요소를 고려하여, 자료조사 과정에서 개인 사행록, 필담집, 한시 창화 기록, 서한(書翰), 한일 외교문서, 그림과 사진 등의 이미지 기록, 메이지 일본 신문 등 국내외 각지에 흩어져 있는 보다 방대한 수신사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현재 정리 중이다. 예컨대 수신사 일행의 사행록과 조사시찰단원들의 시찰보고서 및 일기 그리고 그들이 입수한 서양서적과 번역서 등의 조선측 자료뿐만 아니라, 일본인이 수신사 및 조사시찰단원과 주고받은 내용을 기록한 일본어 필담집을 비롯해 일본 문인들의 문집에 실려 있는 창수시와 서한 등 일본에 남아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 과정 가운데 수신사 일행이 참석했던 동아회 자료와 일본에서의 수신사 행적을 소개하였던 당시 일본의 신문기사 및 상업 출판물, 일본인들이 그린 조선사절의 그림과 사진들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수신사 행적과 관련하여 기술된 일본 외무성의 공식 기록과 수신사로 파견된 조선 지식인을 흥미롭게 바라보았던 외국 공사의 사적 기록 및 기타 외국 신문에 보도된 자료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수신사와 관련된 세세한 기록을 모두 수집하였으며, 이를 DB로 편찬하고자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신사와 관련된 자료를 집대성함에 있어서 디지털 환경과 컴퓨터 기술을 적절히 응용한 디지털 인문학의 방법론에 기초하는 이유는,

12) 이효정, 『수신사 및 조사시찰단 기록의 범주와 유형』, 『동북아문화연구』제45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5. 115면

기존 아날로그 연구방법론이 제공하지 못하는, 근대 전환기 조선 지식인의 신문물 수용 양상과 관련된 보다 폭넓은 자료집 편찬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그에 근거하여 향후 보다 섬세한 연구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촉발될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디지털 인문학 연구는 기존 인문학 연구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인문학 연구 과정이 보다 매끄럽게 진행되고 연구 결과 또한 보다 섬세하게 정리되어 연구의 가치가 더욱 널리 확산될 수 있게끔 새로운 방법론에 기초하여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미상 자료에 대한 토대 연구 기초 확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국학 자료의 확충과 한일 문화교류에 대한 학문적 관심 고취 그리고 국학연구 인력 양성이 라는 부가적 가치 또한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의 토대 위에서 수신사 자료 DB 편찬을 진행함으로써 도모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수신사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목록을 만들고, 디지털 사본을 제작하고, 번역 및 분석의 과정을 거쳐 해당 분야의 지식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는 DB를 구축하는 작업은 디지털 인문학 연구로 여겨지기 이전에 하나의 온전한 인문학 연구로 수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론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온전한 디지털 인문학 연구는 온전한 인문학 연구의 연장선상에 다름 아니다. 디지털 인문학 연구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인문학 연구수행이 지닌 근본적 성격을 명확히 인지함으로써 가능하며, 디지털 인문학 연구의 DB 편찬 과정에서 견지해야 할 문제의식은 인문학 연구의 자료 수집·분석 과정에서 마땅히 시도되어야 할 고민과 큰 차이가 없다. 본고는 ‘수신사 자료 DB 편찬 프로젝트’라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이와 같은 두 가지 맥락의 논의를 다루어봄으로써 디지털 인문학 연구의 가치와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하게나

마 정리해보고자 하였지만, 그 핵심은 무언가 대단한 논리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본문에서 언급하였던 XML 기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시각적 데이터 관계망 구현 그리고 여타 연구자의 데이터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위키피디아(Wikipedia)’ 방식의 디지털 간행물 등 향후 ‘수신사 자료 DB 편찬 프로젝트’의 성과로 제공될 결과물의 표면적 형식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물들이 제공할 인문학 연구의 보다 확대된 외연에 관심을 갖는 것이야말로 연구자들이 주목해야 할 디지털 인문학 연구의 기초이자 핵심이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연구논문

- 김바로, 『해외 디지털 인문학 동향』 『인문콘텐츠』33, 인문콘텐츠학회, 2014. 3면.  
김 현, 『디지털 인문학 : 인문학과 문화콘텐츠의 상생 구도에 관한 구상』 『인문콘텐츠』29, 인문콘텐츠학회, 2013. 11~17면.  
이삼성, 『‘제국’ 개념과 19세기 근대 일본』 『국제정치논총』51, 한국국제정치학회, 2011. 72면.  
이효정, 『수신사 및 조사시찰단 기록의 범주와 유형』 『동북아문화연구』45, 동북아시아 문화학회, 2015. 113~115면.  
허경진,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다양한 층위(層位)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 『한민족어문학』66, 한민족어문학회, 2014. 329~334면, 342~343면.  
홍정욱, 『디지털기술 전환 시대의 인문학 : 디지털 인문학 선언문을 통한 고찰』 『인문콘텐츠』38, 인문콘텐츠학회, 2015. 47~54면.

### 2. 단행본

- 김현 지음, 『인문정보학의 모색』, 북코리아, 2012. 515~582면.  
마셜 매클루언 지음·김상호 옮김,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151면.  
엘리자베스 L. 아이젠슈타인 지음·전영표 옮김, 『근대유럽의 인쇄미디어 혁명』,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151면.

니케이션북스, 2008. 43-93면.

제이 데이비드 볼터 지음·김익현 옮김, 『글쓰기의 공간』,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35면.

토마스 쿤 지음·김명자 홍성욱 옮김, 『과학혁명의 구조』, 까치글방, 2013. 148-163면,  
275-292면.

해럴드 A.이니스 지음·김문정 옮김, 『제국과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254면.

### 3. 웹사이트(URL)

[http://www.digerati.kr/mediawiki/index.php/수신사\\_DB](http://www.digerati.kr/mediawiki/index.php/수신사_DB)

[http://www.digerati.kr/mediawiki/index.php/표류\\_노드\\_시각망](http://www.digerati.kr/mediawiki/index.php/표류_노드_시각망)

논문투고일 : 2016. 03. 10. 심사완료일 : 2016. 04. 04. 게재확정일 : 2016. 04. 06.
---

Abstract

## A Look at Digital Humanities Methods and Practices

- Focusing on the Case of the DB Construction Based on the Records of *Susinsa* (Joseon's Envoys Sent to Japan in the Late 19th Century)

Ryu, In-tae\*

The DB Construction Based on the Records of *Susinsa* (Joseon's Envoys Sent to Japan in the Late 19th Century) is a research project designed to collect various types of materials related to *Susinsa* during the Joseon Dynasty, translate and interpret the contents of the materials, and build a comprehensive database. This project deserves to be recognized as part of digital humanities, as it involves the construction of a digital database of diverse information and knowledge obtained from the processes of collection,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all the relevant materials.

This project has two significant implications with regard to its digital nature. First, this project demonstrates the outstanding differences between traditional and digital humanities in terms of the way research is conducted. This project is based on a research group's collective work instead of an individual's research results as is common in many traditional humanities research studies. Moreover, not only the research results, the research procedures are also treated as a significant element in this digital research approach. In short, this research approach faithfully follows the basic tenets of digital humanities studies that place more focus on processes than results and value collective rather than individual research efforts.

Second, this research has actively explored the following issues: What significance does database construction have in digital humanities? How should contents visualization and database construction be integrated intimately? Currently, the Korean government concentrates on the support of "visualization - realization of digital contents" when it comes to the country's national digital humanities projects. This approach leaves room for misunderstanding, i.e., digital humanities

---

\* Academy of Korean Studies

studies get involved only in the production of visualized materials. Note, however, that significant visualized materials can only be produced from thoroughly designed databases. Thus, this project seeks to design and build a complete database.

Meanwhile, such new research and database construction directions could be discerned from the perspectives of traditional humanities studies, too. This is because digital humanities studies are not inherently different from traditional humanities studies; the former is merely an extension of the latter in the digital age.

**key words** *Susinsa*, DB Construction, Digital Humanities